

보도시점 2026.7.10(금) 14:00 배포 2026.7.10.(금) 7:30

개인정보 온라인 불법유통 청년들이 직접 차단한다.

- 개인정보위·KISA, '제4기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
- 이전 활동 우수자 '모니터링 멘토(Monitoring mentor)' 위촉, 실전 탐지 노하우 전수
- 6개월 간 SNS·중고거래 플랫폼 등 생활 밀착형 플랫폼 취약점 선제 진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7월 10일(금) 서울 중구 소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2026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 2026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원)생 모니터링단 개요 >

- (활동기간) 2026년 7월 ~ 2026년 12월
- (참가대상) 개인정보보호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50명, 前 기수 멘토 5명
- (활동내용) ▶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상시 모니터링
 - ▶ 주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탐지·분석
 - ▶ 유관기관 탐방, 전문가 특강, 멘토링 및 캠페인 등 참여
- (활동혜택) 최우수 활동자 5명 시상(위원장상 1점, 인터넷진흥원장상 4점)

이번 모니터링단은 전국 33개 대학에서 선발된 총 50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깊은 '디지털 세대'로서, 올해 12월까지 약 6개월간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선봉장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선배 기수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멘토(Monitoring mentor)'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전 모니터링단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선배 단원들이 올해의 멘토로 공식 위촉되어 신규

단원들에게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기법 등 현장에서 체득한 실무 경험을 직접 전수한다. 이를 통해 신규 단원의 빠른 적응을 돕고 활동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모니터링단은 단순한 감시에만 머무르지 않고 능동적으로 취약점 진단에도 나선다. 청년층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주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SNS·중고거래 플랫폼 등)를 직접 이용해 보며,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요인과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면서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게 된다.

아울러 참여 단원들이 미래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mentoring)을 비롯해 유관기관 탐방, 전문가 특강 등 다채로운 실무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연말에는 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최우수 활동자 5명에게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모니터링단은 디지털 시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활동이다.”라며, “이번 참여를 계기로 미래 데이터 시대를 이끌어갈 전문가로 성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	책임자	과 장	이정은 (02-2100-3121)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조근환 (02-2100-3124) 유진오 (02-2100-3125)
<공동>	한국인터넷진흥원 탐지조사팀	책임자	팀 장	문홍식 (061-820-2810)
		담당자	주 임 주 임	황선영 (061-820-2819) 최 산 (061-820-2822)